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5일 수요일 음 6월 2일 (1물)

기상정보

호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7℃, 낮 최고기온은 29~32℃로 예상된다. 소강상태가 많겠으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으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 주	30%
70%	성 산	60%
70%	고 산	30%
7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5/30℃

모레

흐리고 비

24/31℃

월드뉴스

트럼프 “이란 공습 재개”... 의회에 공식 통보

미 의회, 논란 대응 주목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해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미국이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 무장 대원들

연합뉴스

미국에서는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행동 개시 후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은 60일로 제한된다.

CBS는 지난달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공습 재개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전쟁권한법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세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연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삶을 돌 돌 전화를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로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봉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상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전,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봉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로노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건강&생활



박준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치매는 궁극적으로 뇌에서 시작되는 병이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고,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신경염증 질환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내 미생물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로 떠오르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 그리고 신경염증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순환이 형성된다. 독성 단백질이 염증을 유발하고, 지속된 염증은 다시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한다. 최근에는 이 악순환의 한 축인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매 치료의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조절 인자 가운데 하나로 장내 미생물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체의 전신 염증은 뇌와 간, 골수, 림프계,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면역 네트워크에 의해 조절된다. 장은 외부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통해 뇌에 도달해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과 뇌는 신경, 면역계, 호르몬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이를 ‘장-뇌 축(gut-brain axis)’이라 부

른다. 결국 건강한 장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유발하는 만성 염증은 알츠하이머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염증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뇌혈류를 손상시키며, 파킨슨병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에서도 장의 염증 반응이 신경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벽이 약해지는 ‘새는 장 증후군(Leaky Gut Syndrome)’이 발생하면 장내 독소가 혈류를 통해 혈뇌장벽을 통과해 신경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뇌 축을 통한 전신 염증 조절은 뇌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장 건강까지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치매 예방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신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지중해식 식단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정제당과 초가공 식품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와 이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내 미생물 조절이 치매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전략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치매 예방과 진행 완화를 위해서는 뇌의 병변뿐 아니라 장 건강을 포함한 전신 환경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늘리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열린마당

민원혁신, 디테일을 삶의 편의로 치환하는 힘



김성진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단

민원(民願)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단어는 갈등과 불만, 혹은 피로감이라는 부정적 잔상으로 먼저 다가온 한다.

그러나 민원의 본질은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시민 참여자 혁신의 장구다.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그늘막과 ‘장수 의자’다. 이제는 여름철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늘막은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땀속까지 타들어 가는 것 같다”는 시민의 고충을

폴 패스(Pol-Pass), 골든타임 지키는 첫 관문



고광현

제주경찰청 지역경찰계(경장)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긴박한 상황에서 단 1분 1초가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이 보편화된 오늘날 신고 출동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애물은 공동현관이다.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은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현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주경찰청은 공동현관의 신속한 출입을 위해 ‘폴 패스(Pol-Pas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

동현관 비밀번호를 112시스템에 입력하거나 RFID 카드를 등록해 경찰이 신속히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4,485개소 중 81.2%에 폴 패스가 구축됐지만 일부 공동주택은 입주민 반대나 관리인 상주 등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인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거나 다른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진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와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 없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현관 신속 출입 체계 구축에 모두가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